



◆ 미 수은, 상원 금융소위원회에서 수출촉진 방안 증언

미 수은의 Eduardo Aguirre 부총재는 2002년 5월 14일 미 상원의 금융·주택·도시문제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미국 정부의 새로운 무역촉진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미 수은의 지원방안에 대해 증언하였다.

무역촉진전략을 마련한 무역촉진협력위원회(TPCC)는 정부기관간 수출증진 노력을 조율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, 미 수은 총재가 부의장을 맡고 있다. 동 위원회는 SBA(중소기업청), OPIC(해외민간투자공사), TDA(무역개발청), AID(국제개발공사)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
미 수은의 수출촉진 지원방안은 ①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절차 간소화 및 타 수출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, ② 미 중소

기업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앞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, ③ 수출경쟁 상대국의 수출보조금 지원에 따른 미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왜곡시키는 경쟁상대국 정부의 수출보조금 저지 노력, ④ 타 수출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서비스 수출 부문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절차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.

미 수은은 2001회계연도중 125억 달러의 지원실적을 기록하였는데, 건수기준으로 지원거래의 약 90%가 중소기업에 지원되었으며, 383개의 중소기업이 신규로 지원 혜택을 받았다.

【워싱턴주재원】